

가장 좋은 커피 맛

나는 솔직히 말해서 커피 맛을 잘 모른다. 그저 씹쓸하고 달면 맛있는 커피라고 말하곤 한다. 하지만 커피 잔을 마주하며 앉아 있는 자리는 참 좋아한다. 그 분위기를 좋아한다는 말이다. 하지만 역시 어떤 커피가 더 맛있다는 것은 잘 알지 못한다. 진한 커피는 전부 좋은 것 같기도 하다. 그래서 기회가 될 때마다 다른 커피 가게를 찾는다. 혹시 나에게 맞는 커피 가게가 있는지 알고 싶어서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내 마음에 맞는 커피 가게는 만나지 못했다. 다른 사람들도 그럴까? 생각하게 된다.

그런데 가끔 커피 맛이 좋을 때가 있다. 그것은 커피의 맛보다도 누구와 같이 마시는가?에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기분 좋은 만남 일 때에 또는 귀한 이야기들을 주고받을 때의 커피는 맛이 괜찮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아닐까? 생각해 본다. 어느 교회나 교회는 같은 교회가 아닌가? 하지만 다르다면 교회의 문화가 조금 다를 것이고 그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르다. 하지만 그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나에게 어떠한 존재들인지에 따라 내가 느끼는 분위기는 많이 다를 것이다.

그러면 지금 내가 나오는 교회는 나에게 어떠한 교회인가? 정말 맛이 나는 교회인가? 아니면 얼떨떨한 맛을 어렵게 맛있다고 마시는 커피와 같지는 않은가?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커피 알을 갈아서 만든 최상의 맛을 내는 곳이다. 그런데 문제는 누구와 함께 마시는가?가 그 맛을 다르게 할 수도 있다. 일주일 동안 어렵게 살아온 시간들을 서로 위로하며 회복하는 곳이라면 그 곳은 맛 나는 곳이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며 힘을 얻고 성도 서로를 통하여 사랑을 주고 또한 누리는 곳이라면 더 있고 싶은 곳이 된다. 그러니 맛이 날 수 밖에 없고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가장 값진 그 곳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라고 말씀하신다. 세상에서 가족 되게 하신 같은 교회 성도들 간에 있어야 할 분위기와 맛이다.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커피 향과 같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아름다운 그 맛을 누리게 하신다. 우리교회가 그러한 곳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숙제를 우리에게 주셨다. 어느 한 사람의 노력이 아니고 저절로 생기는 분위기도 아니다. 모두 함께 만들어 나갈 때 다른 커피 가게를 둘러볼 필요도 없다. 이곳이 나에게 가장 좋은 곳이 되었기 때문이다.

교회가 커피 가게는 결코 아니다. 하지만 커피 가게를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한다. 성도들이 모이고 싶고 함께 하고 싶은 교회. 한 번 모이면 헤어지기 아쉬운 교회. 서로에게 힘이 되고 향기가 되는 만남의 교회. 우리 교회가 그곳이 될 때에 값싼 커피를 끓여서 마신다고 해도 가장 맛있는 그 곳이 될 것이다.

아무리 찾아도 내 마음에 맞는 커피 가게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도들이 있으니 나의 마음이 기쁘다.